

David H. Brolliet

다비드 H. 브롤리에

스위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컬렉터 중 한 명인 다비드 H. 브롤리에. 그는 미술계 주요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인물이다. 독특한 의상과 파란 선글라스는 멀리서도 그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. 컬렉터로 명성을 얻었지만, 그의 실제 직업은 영화 프로듀서와 가수, 배우. 그야말로 아티스트적 기질이 가득한 사람이다. 이런 그가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, 스위스와 접한 프랑스 도시 생루이(Saint-Louis)의 페르네-브랑카 재단 미술관(Fondation Fernet-Branca)에서 40년간 모은 현대미술 작품 전시를 열었다. 전시 제목은 '40년의 열정'. 이 인터뷰는 전시 제목처럼,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가 오랫동안 현대미술을 품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다룬다.